

# 우리 엄마도 슬기와 민의 디자인을 멋있다고 느낄까? 혹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혹은 꼭 느껴야 할까?

윤충근 /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사 수업 수강생

출처 : www.sulki-min.com/



슬기와 민이 디자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포스터 시리즈는 멋있다. 물론 모두가 이 포스터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각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중인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 전공자와 디자인

비전공자 사이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간극은 분명 존재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혹은 반드시 좁혀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사실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모두가 슬기와 민의 포스터를 보고 멋을 알아챌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이런 세상 속의 간판, 중국집 전단지, 일수 명함, 선거 포스터 등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래서 작년부터 틈틈이 디자인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계몽) 워크숍을 기획했다. 워크숍의 몇몇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자가 갖고있는 책들을 가지고와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우리 주변의 포스터들을 수집해, 어떻게 좋은 포스터인지 이유를 들어서 생각을 나눠보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계몽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의 생각 차이를 알아보고 싶었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 나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내가 듣는 음악은 멜론 차트 100위 안에 있는 대중가요다. 나는 클래식이나 재즈를 듣지 않는다. 외국의 유명한 마이클 잭슨, 다프트 펑크즈의 노래도 듣지 않는다. 내 귀에는 소녀시대, 트와이스의 노래가 더 좋다. 누군가 비틀즈의 노래가 좋다고 권유한들 별로 듣고싶은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듣고 사는 노래만으로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인지 최근에야 인식했고 나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디자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인의 친구 미술의 경우를 통해 생각해 보자. 공예 이론가

야나기 무네요시가 쓴 책 <공예 문화>에서는 미술이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자유의 함께 탄생 된 개념이라 말하면서 미술의 특징으로 감상성, 자유성, 개인성을 든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의 미술품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것들은 미술이 아니었다. 석굴암이나 불국사, 첨성대는 감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미술이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당시의 일상이었다. 불교라는 종교가 침투해있었던 일상이 자연스레 만들어낸 조형과 건축물들이었다.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개인과 자본주의를 태어났다. 개인의 등장은 천재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천재가 아닌 대다수인 대중을 외면해버렸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윤만을 강조되면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태어난 미술이 갖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미술문화에서 공예문화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미술이 공예에서 분화 되기 이전인 종합시대를 꿈꾸는 것 처럼 보인다. 엔트로피 법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나와 돈의 맛을 알아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이 과연 가능한가?

그럼에도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착한 마음'이다. 갑자기 논리가 없어지는 소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사회라는 것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개인은 조금 불편해 지지만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한국에서도 아주 느리고 미미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대중들을 외면한 동시대 미술에서도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체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폭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글의 제목에 쓴 질문에 당장은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 우선은 미와 추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까지하려했던 나에 대해 반성하는 중이다. 위의 질문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게도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미에 대한 역사, 사상에 대한 역사, 디자인에 대한 역사 등.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끝.